

논문 잘 읽는 법

Suhkyung Kim

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-Champaign

페이스북에 올라온 후배님의 고민

“논문, 인터넷 신문처럼 술술 읽고 싶은데…

현실은 훈민정음이야.”

대학원생이라면 피할 수 없는 산,

논문 읽기

“한줄 한줄 읽다 보니 앞 내용을 까먹었어...”

“내용이 너무 많아! 뭘 기억하면 좋지?”

“한 편 읽는데 하루 종일 걸려...”

“어떻게 0₃₇어야 좋지?”

1. 모든 논문은 이야기다

모든 연구 분야엔 나름의 이야기가 있다

연구 결과가 쌓이고 쌓여 이야기의 큰 줄거리로 이룬다

각각의 논문은 그 줄거리를 잇는

“다음 이시간에...”

논문의 이야기는 새로워야 한다
하지만 큰 줄거리 를 무시하면 안된다
그럼, 그냥 **픽션**이 되거든.
논문이 아니라.

논문은 “예전에 검증된 사실들”을 토대 삼아,
“새로 검증된 사실”에 대해 쓰는 이야기다.

쓰는 이도 고민한다:

“어떻게 해야 “지금 검증된 사실”을,
좀더 정확하게,
좀더 설득력 있게,
한번에 일회도록
쓸 수 있을까?”

초록은 세 번 읽어야

무작정 시작하지 마라. 논문은 **픽션**이 아니다.

그냥 한 줄 한 줄 읽다 보면 산으로 가는 머릿속...

논문의 엑스만 뺏은 이정표, **초록** (Abstract)

괜히 처음에 오는 게 아니다.

다 고생고생하며 쓴 거다

чив히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게 **초록!**

초록만 잘 알아도 절반은 안다.

진짜 정말정말 시간 없을 땐 초록만 알고 가는 것도 하나의 꿈수

첫 줄은 실마리다

초록을 잘 읽었다.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다.

그 다음은?

첫 줄을 잘 들여다보자.

앞으로 이어질 모든 내용의 실마리다.

가지는 척도 벗어나진 못한다

“아, 글쓴이가 이으려는 큰 줄거리가 이거구나.”

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천지 차이

건너뛰며 읽어라

모든 내용은 첫 줄에서 시작한다.

만 처음 첫 줄이 논문의 큰 이야기를 좌우한다면,

각 문단의 첫 줄은 작은 이야기를 좌우한다.

큰 이야기 속 작은 이야기의 짜임을 먼저 보자.

한 줄 한 줄 읽기는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.

그리고 솔직히 이게 더 빠르다

그림을 잘 봐라

그림(figure)은 논문의 꽃이다

꽃 피우는 게 제일 힘들다

이공계 쪽 논문은 특히 그림에 혼신을 다한다

그런고로,

그림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면 절반은 안다

그림을 알고 캡션을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

2. 이어가기 잘 읽는 법

Introduction 일기

웬만하면 여기서 막힌다

무지막지한 내용! 쓸어지는 사실들!

제작하기 참으로 힘난하다. 이거 어쩌지?

일어야 할 때가 있고 제끼야 할 때가 있다.

Introduction 일기

일기어라:

- 이전 큰 줄거리 를 한눈에 보고 싶다
- 줄거리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하다

제가어라:

- 비슷한 논문들을 여러 편 일기본은 된다
- 세미나까지 30분 남았다...

다 제기란 말이 아니다

이걸 땐 앞서 말한 대로, 문단의 첫 줄만 건너뛰며 일기어라
그래도 큰 그림은 가져가야지 않겠니

시간 여유가 있다면 한 차례 건너뛰며 읽고 나서 꼭 정독!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.

Method & Result ②/7

Introduction은 피가 되고 살이 된다. 그럼?

Method & Result, 이들이 비켜야 한다.

이 부분은 무조건 다 읽는다.

Method & Result 일기

단, 꼼꼼하게 일기 어라:

- 이제 연구 돌입한 석사 1년차

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방법을 써서 말을 만한 사실을 알아내는구나!

- 비슷한 연구를 하는데 남들은 어떤 방법을 썼을까?

그냥 일기 어라:

- 당장 내 연구에 적용하지 않을 때

- 세미나까지 30분 남았다...

그 귀중한 30분을 여기에 투자해라. 한 마디라도 더 할 (깰) 수 있을 것이다
그립만 짐승적으로 보는 것이 포인트

DISCUSSION 01 27/7/

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다가 아니다
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도 큰 문제다, 사실은.

연구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걸 새로이 알아내는 일입니다.
알아낸 걸 설명하는 작업이 여기서 이루어진다.

근데 은근히 잘 안 들어

Discussion 일기

01 어려움:

- 결과만 놓고는 영 모르겠다, 어떻게 설명했는지 알아겠어!
 - 이 이야기에서 더하고 빼볼 건 있나?
 - 뒤이어 할 만한 이야기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?

제가 어려움:

- 세미나까지 30분 남았다...
그 30분을 Method & Result에 잘 썼으면 눈물을 머금고 버린다
단, 시간이 넉넉하면 Introduction과 더불어 잘 읽어 본다
생각을 키우는데 좋은 트레이닝이 되니까.

답: conclusion 일기

웬만하면 일기와, 특히 바낼 땐.

초록만글이나 유용한 엑시스가 된다

게다가 짧다

<금호> 때만 쓰는 초석의 조회

1. 초록은 일단 무조건 세 번
2. Introduction: 맨 첫 줄 읽고 나서 문단마다 건너뛰다
3. Method & Result: 그림만 본다
4. Discussion: 제낀다
5. conclusion: 한 번 읽어서 깔끔하게 마무리

이렇게 하면 어지간한 논문은 30분에 끝낸다

착한 대학원생은 따라하지 마세요

<그러나 진짜 추천하는 궁극의 조합>

1. 영어 실력을 길러서 처음부터 끝까지 30분 안에 정독한다
2. 꼭
3. (...)

일기 어주셔서 감사합니다 :-)

어디까지나 이공계 논문을 주 대상으로 한
개인적인 AtoZ였음을 알려드리며,

각자의 노하우를 만드는데 약간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.

궁금하신 사항은 suhkyungbud@gmail.com 으로 부탁드려요.